3월 8일(월) / 창29-32

▶ 내용요약 :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정착한 후,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후 레아는 야곱을 통하여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다. 그러나 라헬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여 괴로워했다. 이에 3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도 은총을 베푸셔서 아들 요셉을 낳게 하셨다. 한편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다시 정하며 삼촌 라반과의 계약을 연장했다. 31장에서 야곱은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고 품삯을 어긴 삼촌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자식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워서 급히 도망쳤다.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이 야곱의 뒤를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셨다. 이에 라반과 야곱은 서로 언약을 맺고 각자의 길로 떠났다. 32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위협을 느낀 야곱은 형에게 예물을 보내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이후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 질문 :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곳의 이름은 무엇인가?(32장)
▶ 생각하기 : 서로 속고 속이는 죄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홀로 완전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자.

3월 9일(화) / 창33-36

▶ 내용요약 :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온 형 에서를 왕처럼 영접하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은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다. 이후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집과 우릿간을 짓고 거주하다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앞의 밭을 사고 그곳에 정착했다. 한편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여동생의 일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한 후, 통증을 겪고 있는 세겜 사람들을 기습하여 진멸했다.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벧엘로 올라가도록 야곱에게 지시하셨다. 이에 야곱은 집안의 모든 우상을 버린 후 벧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곳 이름을 '엘벧엘'이라고 불렀다. 한편 야곱의 아내 라헬은 자신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삭 또한 백팔십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36장에는 에서 즉 에돔의 족보와 그 왕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 질문 : 그 땅의 여인들을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한 야곱의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34장)
▶ 생각하기 : 두려워하는 야곱을 벧엘 즉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3월 10일(수) / 창37-40

▶ 내용요약 :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과 그런 요셉을 시기하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요셉의 꿈 이야기로 인해 형제들의 분노와 질투는 더욱 커지고 말았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고, 상인들에게 끌려간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 한편 38장에는 유다의 가족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시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었으나,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후 40장에서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였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고 술을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풀려나게 되었다.
▶ 질문 :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간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은 누구인가?(37장)
▶ 생각하기 :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요셉과 함께 하셨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자.

3월 11일(목) / 창41-45

▶내용요약 : 창세기 41장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가올 흉년에 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42장에서 요셉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온 자신의 형들을 발견했다. 이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심문한 후에, 다음에 방문할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명령했다. 이후 43장에서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갔다. 형제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그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44장에서 요셉은 집으로 향하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워 다시 잡아오도록 명령했고, 이에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고 말았다. 45장에서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요셉이 스스로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도록 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과 요셉이 보낸 수레로 인하여 기력을 회복하였다.
▶질문 :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후 요셉은 애굽의 무엇이 되었는가?(41장)
▶생각하기 :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뿐 아니라, 다가올 흉년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성서적 세계관으로 시대를 진단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3월 12일(금) / 창46-50

▶내용요약 : 창세기 46장에서 이스라엘(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향했는데, 당시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은 모두 칠십 명이었다. 47장은 바로 왕을 만난 후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는 야곱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을 통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준다. 48장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동생이 장남보다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49장에서 야곱은 열 두 명의 아들에게 유언과 축복의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에 50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죽음 후 형들은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다. 이후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백십 세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질문 :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애굽의 땅 이름은 무엇인가?(47장)
▶생각하기 :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가능함을 기억하자.

3월 13일(토) / 출1-4

▶내용요약 :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의 등장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된다. 애굽 왕은 히브리인이 낳은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2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한 사내아이를 보여준다.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 강 가에 두었다. 그때 마침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아이를 건져 양자로 삼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모세이다. 이후 공주의 아들로 궁에서 자란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야 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4장에서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질문 : 바구니에 담겨져 나일 강가에 있다가 공주에게 발견되어 건져진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2장)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3월 14일(일) / 출5-8

▶내용요약 : 출애굽기 5장은 바로 왕을 찾아가 이스라엘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핍박하게 되고, 모세와 아론은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모세는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이에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모세에게 다시 상기시키셨다. 7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바로 왕에게 열 가지 표적을 내리시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셨다. 열 가지 표적 중 첫 번째는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나일 강을 치셨고,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바꾸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 왕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으로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로 인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며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을 했지만, 재앙이 끝나기가 무섭게 약속을 어기며 끝내 완강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었다.
▶질문 : 열 가지 표적 중 첫 번째는 무엇인가?(7장)
▶생각하기 : 애굽의 바로 왕은 스스로를 전능한 신으로 여겼으며, 애굽 백성들 또한 수많은 것들을 우상화하여 그것을 숭배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표적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임을 증명하셨다. 지금 우리가 섬기며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의지할 분임을 기억하자. 나일 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다!